

취업주부의 시간사용과 영향요인

Time Use of Employed Wives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n it

진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 韓 景 美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nstructor : Han, Kyeong Mi*

목 차

- | | |
|---------------------|-----------------------|
| I. 서 론 |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
| II. 이론적 배경 | 4. 자료의 분석방법 |
| 1. 취업주부의 생활형태 | 5. 조사대상자의 특성 |
| 2. 생활시간의 의의와 분류 | IV. 분석결과 및 해석 |
| 3. 생활시간의 사용 | 1. 생활시간의 내용 |
| 4.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 시간상호간의 영향력 |
| III. 연구방법 | 3. 생활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1. 연구문제 | V. 결 론 |
| 2. 조사도구의 구성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ime use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f employed wives. Its aims are specified as follows : 1) to figure out the tendency of time use spent on a holiday and weekday by employed wives ; 2) to find out factors influencing the amount of time in each domain spent on each day.

The samples were composed of 396 employed wives living in Seoul and Kwangju city who had the eldest child less than 18years old, were sampled based on their work kind, work status, and residential quarter.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Employed wives spend 423 minutes a weekday, and 513 minutes a holiday on the sleep and 522 minutes(weekday), 618 minutes(holiday) on the total physiological time.

599 minutes(weekday), 72 minutes(holiday) were devoted to the employed time, compared to 214 minutes, 395 minutes for the housework. Finally, 103 minutes and 349 minutes were assigned to leisure time. Compared with the research result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is shows large difference. Korean wives' work time is excessively too long while the time for leisure and physiological time is too short, which means the life style of Korean wives is too simple and monotonous.

2) Social demographic variables(such as work status, education, income, wife's relative income rate, family type, family number, the younger child's age, and etc.) and variables connected with employment(such as employed work time and employment motivation) significantly differentiate the time use. A wife with higher education, employment status, and income level, spends more time for the physiological, leisure time, and managerial housework time, while spending less time for work and physical housework.

I. 서 론

생활시간의 양은 한정되어 있다. 한정된 시간 중에서도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자유재량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제한되게 된다. 그 뿐아니라 시간은 저축할 수 없고, 동시에 두가지 일을 하는 것이 대체로 불가능하다는 제약까지 받게 된다. 이같은 시간의 특성으로 인해 시간은 더욱 희소하고 값비싼 자원이 되는데, 특히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취업주부에 있어 시간은 가장 희소하고 값비싼 자원이 될 것이다. 최근들어 계속되는 취업주부의 증가와 이로 인한 역할요구의 확대, 그리고 생활의 복잡화로 시간자원의 희소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어 최소한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다고 하겠다.

시간을 생활구성의 핵심요소로 보고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관한 연구가 오랜동안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다루어져 왔는데 주로 경제학자나 사회학자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미국의 가정관리학자들은 일찌기 1920년대 부터 주부들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농촌주부와 도시주부의 생활시간을 비교하거나 또는 가족수와 가정생활주기 등의 차이에 따른 생활시간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후 1960년 중반 경제학자들의 시간연구에 자극을 받아 1970년대 이후 가정학에서도 더욱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

어 왔는데, 시간을 가족자원 중에서 대표적인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주로 시간자원의 효과적인 사용과 관리측면에서의 연구에 주력하였다. 또한 가족이 시간을 어떤 활동에 어떻게 할당하여 사용하는가에 대한 자료는 가정생활의 질과 생활양식, 그리고 가족이나 개인의 가치관을 나타내주는 척도가 된다는 인식에서 오늘날 시간연구는 가정관리학의 중요한 분야로 자리잡게 되었다.

현대와 같이 시간의 희소가치가 크고 시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효율적인 시간사용 문제가 더욱 중요하고 연구에 대한 동기도 크다. 제한된 시간안에 여러 역할의 요구를 적절히 충족할 수 있으려면 우선 많은 활동 중에 특정한 활동을 선택해야 한다. 시간사용에 대한 선택에는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가 반영되므로, 시간을 어떤 활동에 어떻게 소비하느냐 하는 자료는 개인이나 그가 속한 집단의 생활양식을 예시해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시간의 양은 제한되어 있고 시간의 가치는 개인의 관리능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며,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의 결과는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시간을 여러 행동 영역에 적정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항상 시간에 쫓기는 취업주부에게서 이같은 요청은 더욱 크다 하겠다.

여성의 교육기회의 증가와 의식의 변화, 그리고 산업에서의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증가와 계속

되는 생계비의 상승등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5세 이상 전체 여성의 45%에 이르고, 기혼여성의 취업비율이 미혼여성의 취업비율을 상회하고 있다. 1989년 현재 취업주부는 전체주부의 4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제기획원, 1990). 오늘날의 취업주부는 전통적으로 여성역할이라 할 수 있는 가족역할에 전통적으로 남성역할이라 할 수 있는 직업역할까지를 수행하므로, 가족생활의 균형적인 측면에서 남성도 직업역할에 가족역할까지를 크게 확대하여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아직까지 가사노동은 성별분업이 뚜렷하여 여성에 의해 거의 전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실은 주부가 취업을 하더라도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비취업주부의 남편과 비교할 때 거의 변화가 없다는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통해 증명된다(Walker와 Woods, 1976; Sanik, 1981; Geerken과 Gove, 1983; 이정수, 1984). 따라서 남편과 부인의 자원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성은 직업역할에 종사하고, 가족역할에는 제한된 범위에서 밖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남녀 역할분업을 지지해주는 자원교환이론은, 취업주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같은 결과를 가져오기까지는 여성자신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Robinson(1976)과 Pleck(1985)의 연구를 보면 사회의 변화나 주부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주부자신이 가사노동에 남편이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남편이 참여할 때 죄책감을 느끼는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에 젖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취업주부에 있어서 역할과중으로 인한 갈등이 불가피하며 동시에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상의 제 측면을 실태로써 보여주고 관련된 연구를 제시해주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취업주부가 요구되는 많은 역할들에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여 사용하는지를 구체적인 시간조사를 통하여 밝히고 이로써 취업주부의 생활내용을 파악하며,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시간배분을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II. 이론적 배경

1. 취업주부의 생활형태

최근들어 우리나라 여성중 특히 취업주부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취업주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70년 이래 1989년까지 14.7% 증가하였고,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오히려 3.2% 감소하여 미혼여성을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경제기획원, 1970, 1975, 1980, 1985, 1987, 1990). 경제활동참가율은 인구크기 다음으로 노동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정에서 기혼여성의 인력이 필요불가결한 노동력의 공급원이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취업구성 비율을 보더라도 1980년대 들어 농가와 비농가 모두 미혼여성의 취업구성비율은 모두 감소하나 기혼여성의 취업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경제기획원, 1990). 그외에도 가사나 자녀양육 때문에 가정내에서 할 수 있는 내직이나 집부근의 영세업체나 파출부 등으로 취업하고 있는 비공식적인 부분의 취업까지를 합하면 기혼여성 취업자의 비율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가부장제 사회와 이에 따른 성고정관념적인 성별분업이 있는 사회적 제도와 의식하에서 또한 탁아시설과 같은 사회적인 보조시설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제도하에서 기혼여성의 취업은 이중노동의 역할과중과 자녀양육에서의 스트레스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우리나라의 취업주부는 서구의 취업주부와는 다르게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그외 친척으로부터 가사조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족구성외에도 주부의 직업지위, 생활수준에 따라 주부의 생활형태가 많이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의 생활수준이 높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주부의 경우는 소득으로 가사노동을 시장의 재화와 용역으로 보다 많이 대체할 수 있거나 가정고용인을 고용하여 가사노동의 부

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생활수준이 낮고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주부는 직장에서의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강도도 더 클 것이며, 가정에서도 낮은 소득 때문에 가사노동을 대체하는 것이 비교적 제한적일 것이다. 특히 이들은 내적인 동기보다는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지게 될 경우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직업전선에 나서게 되는 경우가 많고, 연령이나 기혼, 빈곤, 저학력, 기술결핍 등의 이유로 저임금이고 노동강도가 큰 하위직에 종사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이주부들의 남편은 더욱 가부장적인 태도를 굳힘으로써 가장의 권위를 가지고자 하기 때문에 주부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하고 많은 노동 양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가정내에서 가사를 분담하는 경향이 적어 주부는 과중한 노동고를 겪는다.

전문적이건 비전문적이건 간에 취업주부가 겪는 역할과중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여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편이 부인의 취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가사에 보다 많이 참여해야 할 것이나, 아직까지는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로 간주되고 있어 비취업주부인 경우는 물론이고 주부가 취업한 경우에도 가사의 대부분은 주부가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선행 연구들을 볼 때 남편은 부인이 취업하였다고 해서 가사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었다. 취업주부의 남편은 비취업주부의 남편들과 비교할 때 가사노동의 참여를 거의 증가시키지 않고,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 뿐이거나 절대적인 기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 주택과 뜰 손질에만 국한된 것이었다(Walker와 Woods, 1976; Nickols과 Metzen, 1976, 1982; Robinson, 1976; Sanik, 1981; Wheeler와 Arvey, 1981; Geerken과 Gove, 1983; 이정수, 1984; 이연주, 1984).

그러나 Pleck(1979)은 남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네가지 관점을 제시하면서 과거의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남성은 가사노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으나,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가사노동에 남성의 저조한 참여가 취업주부의 역

할과중을 야기한다는 자각이 일고 있어 미래의 변화하는 역할관점에서는 점점 남성들도 직업역할에 가족역할을 부가하여 역할을 넓혀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기혼여성의 취업율의 증가는 급속한데 반해 남편의 가사참여율은 아주 느리거나 큰 차이가 없어 취업주부의 노동시간의 과중은 심각한 실정이다. 이것은 주부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과 가족원의 복지감과 가정생활의 적응과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Pleck(1985: 112)에 의하면 이러한 취업주부의 과중부담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나, 심리적으로 많은 보상을 줌으로써 주부의 적응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주부의 기대가 높거나 남편의 가사참여가 적을 때, 주부는 불만족하게 되어 결국은 남편과 주부 모두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2. 생활시간의 의의와 분류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자원이며 시계로 양적인 측정이 가능하므로 공간과 함께 인간생활의 내용을 파악하는 척도로서 많이 사용되어왔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는 개인의 생활양식과 생활태도가 반영되기 때문에 생활시간조사는 개인이나 개인이 속한 사회의 생활행동을 측정하고 나아가 집단과 국가간의 국민생활행동을 비교하는데 유효한 도구가 되고 있다. 현대사회는 생활양식이 아주 복잡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어 인간이 생활하기 위해 시간을 할당해야 할 영역이 과거보다 크게 증가하여 시간은 보다 희소한 자원으로써 가치가 크게 증대되었다. 이렇게 희소하고 값비싼 자원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생활시간의 분류는 연구목적과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12개국의 15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활시간을 조사하여 생활양식을 비교한 Szalai등(1972)은 생활내용을 96개의 활동으로 나누고 이것을 37개의 범주로 축소하고 다시 직업노동에 관련된 일, 가사노동, 기타 가사의 의무, 자녀양육, 개인적인 필요시간, 직업일과 관

없는 교통시간, 공부와 조직에 참여시간, 대중매체이용 시간, 여가시간의 9개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Robinson(1976)은 크게 의무적인 활동시간, 자유시간으로 나누고 의무적인 활동시간에 노동, 가사노동, 자녀양육, 개인적인 필요, 교통시간의 영역을, 자유시간에는 조직활동과 교육, 대중매체 이용, 사회적 오락적인 시간으로 분류하여 각각을 37개 영역으로 세분하고 또 각각을 더 세분하여 생활시간을 조사하였다.

위의 연구는 생활내용을 세분하여 조사한 생활시간 연구에서 대표적인 연구라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루어진 가사노동이나 여가에 관련된 연구들에서 영역결정에 비교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시간연구에서 가사노동에는 자녀양육과 기타 가사의무나 책임등이 포함되고, 여가에는 대중매체의 이용이나 조직참여활동, 그리고 기타 사회문화적인 활동들까지 포함하고 있다(Walker 외 1976 ; Firestone과 Shelton, 1988 ; 한경미, 1987, 1989 ; 한경미와 황덕순, 1990).

한국방송공사에서 실시한 국민생활시간조사(1985, 1986, 1988)는 생활행동을 생활필수, 노동과 여가로 대별하고 생활필수시간에는 수면, 식사, 그리고 신변잡일을, 노동시간에는 일, 가사, 통근을, 여가시간에는 개인적인 교제, 안정과 휴식, 취미와 오락, 신문·잡지·책, 라디오, TV시청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분석(농촌진흥청 1984 ; 1986)은 생활시간을 크게 노동시간, 여가시간, 휴양시간으로 분류하였으며, 세분하여 총 31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일본에서 실시한 생활시간 연구(桑田百代, 1976 ; 大竹美登利 외, 1987)는 하루 24시간을 생리적 생활시간, 수입노동시간, 가사적 생활시간, 사회적·문화적 생활시간으로 분류하고, 각각을 세분하여 총 32개 영역의 시간을 조사하였다. 이 분류에서는 휴식을 여가가 아닌 생리적시간에 포함하였고, 여가의 분류에 있어서도 활동을 세분하지 않거나 활동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못한 경향이 있다.

이상과 같은 생활시간의 분류를 종합하여 볼 때

분류상 몇가지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하루의 생활행동을 정교하게 세분하여도 개인마다 독특한 생활내용을 포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생활내용을 평면적으로 파악할 수 밖에 없어 시간사용에 내포된 의미나 내용은 간과하게 된다. 또한 시간사용의 질을 결정짓는 생산성이나 효율성, 몰두 정도 등은 파악할 수 없고, 영역구분이 모호한 활동들(자녀와 놀아주는 시간, 뜨개질, 쇼핑)의 영역설정 문제가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고려할 때 시간분류는 가능한 한 세분할 수 있는데 까지 분류하고, 이중적으로 시간을 사용한 경우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영역설정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하루 생활시간을 크게 생리적시간, 직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사회봉사와 기타시간으로 분류하고, 생리적시간에는 밤잠, 식사, 세수와 목욕, 단장과 배변, 병원치료로 세분하고, 직업노동시간은 직장에서 근무노동을 하는 시간과 출퇴근할 때 소요되는 교통시간을 포함하였다. 가사노동시간은 크게 신체적 가사노동시간과 관리적 가사노동시간으로 분류하고, 신체적 가사노동시간은 식사준비와 설거지, 청소, 세탁과 옷정리, 신체적 가족보살핌을, 관리적 가사노동시간은 비신체적 가족보살핌, 구매, 집안일 계획과 가계부 기록 등을 포함하였다. 여가시간은 적극적 여가시간과 소극적 여가시간으로 나누고, 적극적 여가시간에는 창작과 공예, 스포츠, 관람과 구경, 사교모임, 게임과 승부놀이, 종교활동을, 소극적 여가시간은 TV시청과 라디오 청취, 신문·잡지·책보기, 한가로운 이야기나 대화, 휴식과 낮잠으로 세분하였다. 그리고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봉사와 기타시간으로 분류하였다.

3. 생활시간의 사용

사람들은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면과 식사와 같은 활동에 시간을 소비하고, 가정내 역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족원에게 시간을 할애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일이나 기타 활동에 시간을 할애한다. 여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자원

표 1. 취업주부의 시간사용 경향

연구자	단위: 분(%)				
	Szalai	Bullock	Robinson	桑田百代	大竹美登利
연도	1972*	1974*	1976	1976	1987
직업노동	303(21)	301(21)	252(18)	261(18)	273(19)
가사노동	242(17)	212(15)	219(15)	318(22)	305(21)
생리적	627(44)	649(45)	634(44)	604(42)	657(46)
여가	266(18)	278(19)	297(21)	257(18)	205(14)
계	1,440	1,440	1,440	1,440	1,440

* 토요일 포함한 주평균

나머지는 평일과 휴일 평균.

국내연구로는 시간일기표를 사용하고 시간사용 내용을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분리하여 조사한 연구가 없어 비교하지 못하였다.

이나 개인이 속한 크고 작은 집단에서의 요구나 규범, 그리고 개인의 가치나 특성들이 고려되고 그외에도 여러 상황요인이나 객관적인 환경요인에 의해 구체적인 시간사용이 결정된다.

시간 사용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하루시간은 8시간 수면, 8시간 노동, 8시간 여가로 대별된다고 보았다. 대별한 시간분류에 따라 취업주부의 시간사용 경향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12개국의 국제적인 생활시간을 조사한 Szalai 등(1972)에 의하면 12개국의 국민들의 평균 생활시간은 생리적시간이 627분으로 하루 전체시간의 44%를 차지하고 그다음은 직업노동시간이 303분으로 21%를 차지한다. 그리고 여가시간 18%, 가사노동이 17%를 차지한다. Bullock 등의 연구(1974) 결과도 이와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는데 가사노동만 약간 감소하였다. 이 두 연구는 일주일중 평일과 휴일, 토요일까지를 포함하여 주평균을 낸 것이므로 토요일을 제외하고 평일과 휴일만을 평균한 나머지 연구결과들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Robinson 연구(1976)에서는 생리적시간이 역시 634분, 4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그다음은 여가시간으로 21%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직업노동, 가사노동순으로 나타났다. 10년차이로 일본에서 행해진 두 연구(桑田百代 외, 1976; 大竹美登利 외, 1987)를 보면 역시 평일과 휴일을 평균한 것인데 다른 연구들과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할 때 생리적인 시간의 비중이 약 44%(수면 4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노동시간으로 약 38% 그리고 여가시간이 가장

적은 약 22%를 차지하여, 초기 시간배분 연구들이 8시간 수면, 8시간 노동, 8시간 여가라고 본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시간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인구사회학적 변수

주부의 직업지위는 주부의 취업유무 자체보다 행동양식에 더 큰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이다(이용학, 1985). 이기영(1987)은 전문직 주부가 비전문직이나 비취업주부보다 가사노동을 가정밖의 산업노동으로 많이 대체하는데, 이것은 비전문직 주부일 경우 소득이 적기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가사노동을 대체하지 않고 그대로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주부의 직업지위는 높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의 소비가 적고 반면에 여가시간의 양은 많아질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주부의 직업지위와 근무노동시간과의 관계를 보면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근무노동시간 수가 감소하여 전문기술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시간양이 적고 생산직 및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의 근무시간양이 가장 많다(노동부, 1989).

교육수준에 따라서 Evenson(1983)은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은 직업노동과 가사노동에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연구들에서는 주부의 교육과 가사노동시간과는 관련이 없거나 가사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보고한다(Nickols 외, 1978; Hafstrom 외, 1983; 이정수, 1984). 한편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은 자녀양육 및 가족원의 보살핌과 그의

관리적인 가사노동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미, 1987 ; 1989 ; Leibowitz, 1974 ; Walker 와 Woods, 1976). 주부의 교육수준과 여가시간과의 관계에서는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부의 여가시간은 증가된다고 한다(민경애 외, 1985 ; 한경미 외, 1990).

가족의 사회경제적 환경에서의 변화는 가족내 노동과 여가 및 남편과 주부의 시간할당에 영향을 미친다(Gronau, 1977). 여러 연구들에서 가계소득은 가사노동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시간을 절약하는 촉진요인으로 구분한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촉진효과가 있다고 하였다(Nickols 외, 1978 ; Hafstrom 외, 1983 ; 한경미, 1987 ; 1989). 그러나 소득과 시간사용은 관련이 없거나 그 영향력이 아주 적다는 연구들도 있다(임정빈, 1981 ; Walker 외, 1976 ; Wheeler, 1981). 소득과 여가시간과의 관계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주부의 여가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경애 외, 1985 ; 한경미 외, 1990). 여가활동 유형별로 참여도를 조사한 연구(김외숙, 1990)에 의하면 전체주부를 대상으로 한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소일활동을 제외한 모든 여가활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취업여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서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여성자신의 소득보다는 남편소득을 포함한 가계소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의 수입은 주부의 여가시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Nickols과 Abdel-Ghany, 1983).

주부의 상대적 임금율은 Becker식의 미시경제학자에 의하면 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에 의하면 시간배분은 외부 경제체계와 가족체계에 대한 남편과 부인의 잠정적인 상대적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잠정적인 생산성은 남편과 부인의 임금율과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에 기초를 두는데, 임금율이 높을수록 남편이나 부인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적어진다(Becker, 1965 ; Gronau, 1976). 자원이론에 의할 때 남편이나 부인이 소유한 소득이나 교육과 같은 자원은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Blood와

Wolfe, 1960). 상대적 임금율에 관한 이와 같은 이론들이 우리나라의 취업주부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막내자녀의 연령은 대부분의 시간사용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관련해서 보면 막내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alker등(1976)과 한경미(1987)는 막내연령이 주부 가사노동시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하였다. 막내자녀 연령은 가사노동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녀가 어릴수록 더 많은 가사노동시간을 필요로 한다. 특히 신체적인 보살핌 시간과 교육정서적 보살핌 시간은 자녀가 어릴수록 가사노동시간이 크게 증가하였다. 임정빈(1981)은 특히 막내자녀가 취학전 연령일 때 취사노동시간과 의복관리시간이 높다고 하였다. 그외의 연구들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한다(Hafstrom 외, 1983 ; Goebel과 Hennon, 1983).

가족유형은 부모세대가 함께 동거하는지의 여부로 구분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부가 취업한 경우 조모의 조력이 큰 부담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유영주(1977)와 이연주(1984)연구에서는 가족유형이 주부의 역할수행과 가사분담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가족수의 증가는 가사부담을 증가시키나 조모의 조력은 주부의 가사부담을 경감시키었다. 그러나 부모와 동거하는 확대가족 유형의 경우 가사부담이 아닌 실제의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는지를 검토하고 부모와의 동거로 그외 생활시간에는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가정고용인 유무는 가사노동분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변수로 주부의 가사노동을 조력하는 자원이 되는데, 가사노동시간에서 가정고용인의 용역으로 대체가 가능한 신체적 가사노동과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관리적이고 정신적 측면의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는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직업관련변수

장시간 근무시간에 따른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森ます美 외, 1987)를 보면 남편과 부인의 장시간

근무노동시간은 자신 뿐아니라 배우자의 생활시간에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과 남편 모두 장시간 근무시간은 여가시간과 자녀와의 접촉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특히 주부의 경우는 수면시간과 가사노동 시간이 영향을 받았다. Meiners 등(1987)과 Nickols 등(1983)도 주부의 직업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가사노동시간은 크게 줄어든다고 하였다. 그의 시간제 취업과 전일제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을 비교한 연구들에서도 전일제 취업주부는 비취업주부나 시간제 취업한 주부보다 가사노동시간이나 여가시간이 더 적었다(Walker 외, 1976; 伊藤 외, 1983; 大竹美登利 외 1987).

취업동기는 생계유지나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서 취업을 한 경우는 자아실현과 같은 비경제적인 이유에서 한 경우보다 근무시간이 덜 윤희적이고 초과근무나 야근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노동시간은 증가하고 그의 생리적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채택한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주부의 직업지위와 교육, 소득, 막내자녀연령, 가족형태, 가족수, 주부의 상대적임금율, 남편의 조력, 가정고용인 유무이다. 이 중에서 주부의 상대적임금율과 남편의 조력, 가정고용인 유무는 가사노동시간에만 적용하였다. 직업관련변수로는 주부의 직업노동시간과 취업동기변수를 채택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 취업주부의 생활시간 사용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 시간상호간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직업관련 변수들이 각 영역별 생활시간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질문지이다. 질문지는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문항, 평일과 휴일 이틀간의 생활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시간일기 기록표로 구성되었다. 하루 생활시간의 영역분류는 앞의 이론적 고찰후 제시한 것과 같다. 시간표는 위에서 제시된 각 영역을 보기로 제시하고 하루 24시간을 5분 간격의 눈금으로 구획하여 활동이 시작된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를 표시한 후 내용을 기입하게 하였다. 동시에 두가지 일을 하였을 경우(예를 들면 라디오를 들으면서 다림질)는 더 우선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표시하게 하였고, 더 우선되는 활동이 불확실한 경우는 두가지 활동을 모두 표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중복사용이 타당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둘로 나누었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와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취업주부이다.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보다 정교화하기 위해서 첫자녀연령은 고등학교재학 연령이하인 18세이하로 제한하였다. 주부의 직업유형이 골고루 표집될 수 있게 한국직업사전의 한국표준분류에 따른 소분류표와 홍두승(1983)의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연구를 참고로 하였다. 표본대상지역은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였다. 조사원이 해당되는 직종의 직장을 방문하여 질문지와 평일과 휴일 이틀분의 시간일기표를 나누어주고 설명한 뒤에 2~3일이 지난 후 다시 방문하여 회수하도록 하였다. 비공식부문에 취업한 주부도 상당수 있을 것이나 이 부문을 집계하거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반주부를 대상으로 한 것과 다르게 취업주부는 확률표집을 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취업직종을 1차 집락으로 분류하고, 각 직종을 직업지위별로 총화한 다음 해당되는 직종의 직업지위에서는 유의표집을 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본 조사실시에 앞서 1990년 6월에 취업주부 65명을 대상으로 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1990년

9월 3일부터 10월 8일 사이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서울 330부, 광주 220부 총 550부를 배부하였는데, 회수된 것이 서울 264부, 광주 180부이다. 그 중 생활시간표의 기록이나 질문 문항의 기재가 부실한 것을 제외하고, 서울 238부, 광주 161부 총 396부가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4. 자료의 분석방법

생활시간 사용경향과 관련변수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과 빈도를 계산하였으며, 관련변수를 통제 한 후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GLM분석(general linear models procedure)을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PC+와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5. 조사대상자의 특성

우선 연령을 보면 30대 집단이 56.7%로 가장 많고, 40대 이상, 20대 순이다. 주부의 교육정도는 고등학교졸업 집단이 42.4%로 가장 많고, 다음이 대학졸업, 중학교졸업, 대학원졸업이상 순이다. 주부의 직업을 보면 하위전문 기술직 종사자가 44.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자영서어비스직과 기능직, 하급관리직과 사무직, 그리고 자영상인, 하위서어비스 판매종사자와 단순노무자, 그리고 관리전문직 종사자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보면 주부의 소득은 60~79만원이 29.5%로 가장 많고 40~59만원, 20~39만원, 80~99만원, 100~129만원 순이다. 남편의 소득도 60~79만원이 31.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80~99만원, 40~59만원, 100~129만원 순이다. 막내자녀연령은 학령전 연령이 38.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국민학교 연령이고, 만1세 이하나 중고등학교연령은 10%미만이다. 가족수는 4명이 36%로 가장 많고 5명, 3명, 6명 순으로 평균가족수는 4.2명이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71.7%이고, 확대가족은 28.3%이다. 가정 고용인유무는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81.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파출부나 상주하는 가정부를 고용하고 있다.

직업과 관련해서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보면 주

부의 평일 근무시간은 9.1시간에서 11시간이 41.4%로 가장 많고, 9시간 이하, 11.1시간 이상 순이다. 휴일 직업노동은 일하지 않는 집단이 69.2%이고, 1시간이라도 일하는 집단이 3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하게 된 동기를 보면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취업한 것이 51.9%로 가장 많고, 자아실현, 생계유지 순이다.

IV. 분석결과 및 해석

1. 생활시간의 내용

취업주부의 시간사용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취업주부의 생리적시간을 평일과 휴일로 나누어 영역별로 보면 수면시간에 평일 423분(7시간 3분), 휴일 513분(8시간 33분)을 소비하고 있다. 다음은 식사시간으로 평일 62분, 휴일 75분을 소비한다. 목욕과 세수시간은 평일 21분, 휴일 23분이며, 단장과 배변시간은 평일 16분, 휴일 7분을 소비하고 있다. 취업주부의 휴일 수면시간은 평일보다 90분 더 많고, 식사시간은 13분 더 많아 취업주부는 생리적 시간을 평일보다 휴일에 총 95분(1시간 35분) 더 많이 소비한다.

취업주부의 직업노동시간을 평일과 휴일로 나누어 보면 출퇴근 교통시간을 제외한 근무노동시간에 평일 525분(8시간 45분), 휴일 57분을 소비하고 있다. 그리고 출퇴근 교통시간은 평일 74분, 휴일 15분을 소비하여, 근무노동과 출퇴근 교통시간을 합한 주부의 직업노동시간은 평일 599분(9시간 59분), 휴일 71분이다.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을 평일과 휴일로 나누어 가사노동의 영역별로 시간사용을 보면, 주부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영역은 신체적인 가사노동 중 식사준비와 설거지로 평일 93분, 휴일 141분을 소비한다. 그 다음은 관리적 가사노동에서 비신체적인 가족원 보살핌시간으로 평일과 휴일 각각 37분과 71분을 소비하고 있다. 청소와 집안 정돈시간은 평일 31분, 휴일 61분을 소비하여 그 다음으로 많고, 세탁과 옷정리시간은 평일과 휴일 각각 23분, 47분, 그리고 구매와 쇼핑, 신체적인

표 2. 취업주부의 생활시간 사용 단위: 분

생활 내용		평일	휴일	
생리 시간	수면(밤잠)	423	513	
	식사	62	75	
	목욕·세수	21	23	
	단장·배변	16	7	
	병원치료·기타	-	-	
계		522	618	
직업 시간	근무노동	525	57	
	출퇴근교통	74	15	
	계	599	72	
가사 노동 시간	신체적	식사준비·설거지	93	141
		청소·정돈	31	61
		세탁·옷정리	23	47
		신체적 가족보살핌	16	24
		소계	163	273
	관리적	비신체적 가족보살핌	37	71
		구매	9	43
		계획·가계부·관공서출입	5	8
		소계	163	122
		계	214	395
여가 시간	소극적	TV·라디오·음악감상	52	120
		신문·잡지·책	17	28
		대화(전화·한담)	11	28
		휴식·낮잠	17	76
		소계	95	252
	적극적	창작·공예	1	2
		스포츠	2	9
		관람·구경	-	12
		사교모임·여행	1	12
		승부놀이	-	1
종교활동 및 기타	4	61		
소계		8	97	
계		103	349	
기타	사회봉사 및 기타	2	2	
총 계		1440	1440	

* -표는 .5분 미만임

측면의 가족 보살핌, 계획과 가계부기록 순이다. 영역별로 나누어 보면 신체적 가사노동시간은 평일 163분, 휴일 273분이며, 관리적 가사노동시간은 평일 51분, 휴일 122분이다. 가사노동시간에 취업주부는 평일에는 214분(3시간 32분), 휴일에는 395분(6시간 35분)을 소비한다. 취업주부는 휴일에 1주일동안 밀린 가사노동을 집중적으로 수행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일기표를 확인한 결과 휴일은 1주일간의 밀반찬을 준비하거나 가족원을 보살피는데, 또한 장을 보거나 쇼핑, 구매를 하는 등의 가사노동을 많이 하고 있다.

여가시간 사용내용을 보면 취업주부는 평일 103분, 휴일 349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보면 평일의 여가시간은 휴일의 여가시간의 약 30%에 해당하는데 적극적인 여가는 거의 없고 소극적 여가가 주로 많다. 소극적 여가 중에서도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듣는 시간이 52분으로 여가시간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그 다음은 신문·잡지·책을 보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각각 17분, 전화나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11분이고, 적극적 여가는 모두 5분미만을 소비하고 있다. 휴일의 여가시간도 소극적인 여가가 주로 많은데 휴일에도 역시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듣는 시간이 120분으로 가장 많고, 휴식을 취하거나 낮잠을 자는 시간이 76분으로 많다. 그 다음은 적극적 여가에서 종교활동 및 기타 시간이 61분, 신문이나 잡지와 책을 보고 전화를 하거나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각각 28분, 그리고 관람과 구경을 하거나 사교모임에 참석하는 등의 시간으로 소비하고 있다. 그 외의 적극적 여가시간은 10분 미만이다.

우리나라 취업주부의 시간사용 경향을 일본과 미국의 취업주부 시간사용 자료와 비교해 보면 그림과 같다¹⁾.

1) 시간조사 방법은 3국 모두 시간일기표(time diary)를 사용한 점에서 동일하고, 시간의 하위영역도 3국 모두 세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영역설정이 대체로 유사하다. 영역설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본 연구에 기초하여 조정하였다. 본 연구는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본, 미국의 연구자료중에서 취업 주부의 것만을 뽑아 비교하였다. 일본의 시간사용 자료는 1987년(大竹美登利 등)의 최근 자료가 있어서 평면비교를 하는데 별 무리가 없으나, 미국은 1976년(Robinson)연구가 방법론에서 유사하고, 시간연구에서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어 채택하였다. 3국의 생활시간 비교는 주5일제 근무와 같은 부분에서 구조적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토요일은 제외하고 월요일~금요일 중의 평일 하루와 일요일(휴일) 하루분의 시간을 비교하였다.

韓景美 : 취업주부의 시간사용과 영향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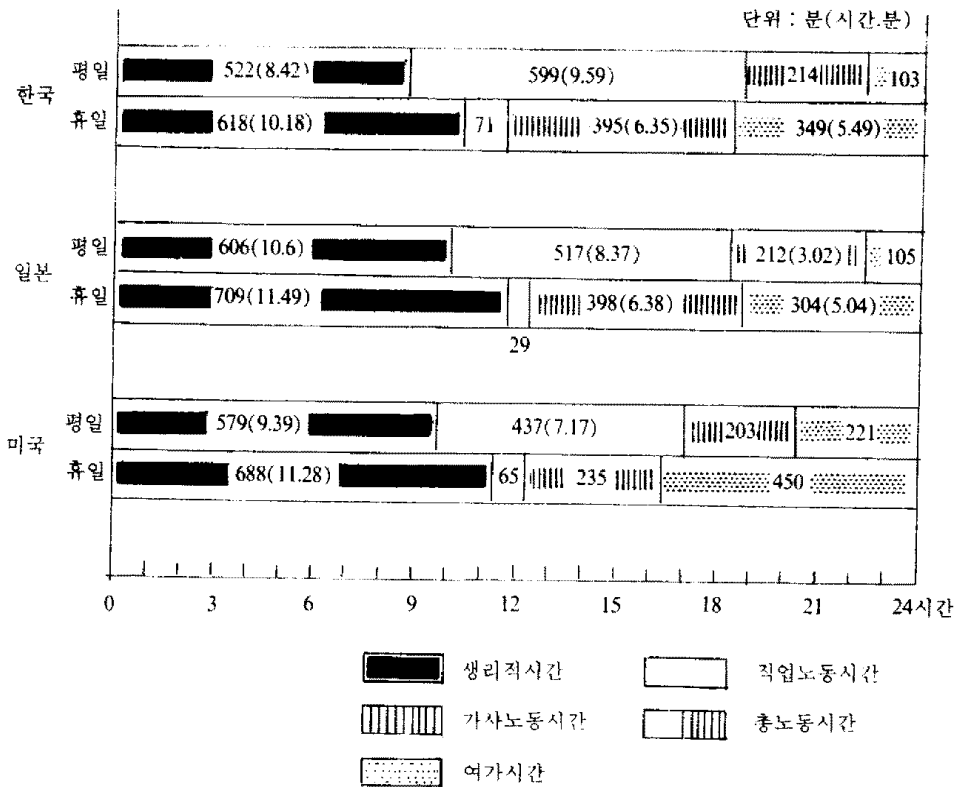


그림. 취업주부 생활시간의 3국비교

우리나라 취업주부는 평일은 생리적시간 522분(8시간 42분, 36%), 직업노동 599분(9시간 59분, 42%), 가사노동 214분(3시간 34분, 15%), 그리고 여가에 103분(7%)을 소비하고, 휴일은 생리적시간 618분(10시간 18분, 42%), 직업노동 71분(5%), 가사노동 395분(6시간 35분, 28%), 그리고 여가에 349분(5시간 49분, 25%)을 소비하고 있다. 취업주부는 평일은 총노동에 전체시간의 57%에 해당하는 시간을 소비하는 반면, 여가시간은 불과 7% 밖에 안된다. 휴일은 평일의 이같은 과중한 노동시간으로 인하여 부족한 수면이나 휴식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주로 잠을 자거나 TV를 보는 등의 소극적인 여가시간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휴일은 평일에 시간이 부족하여 하지 못한 가사노동도 많이 하는데, 특히 식사와 관련해서 시장을 보거나 1주일 분의 밑반찬을 준비하고 가족원을 보살피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일본과 미국의 취업주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취업주부가 직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합한 총노동시간 양이 가장 많다. 총노동시간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수면시간을 비롯한 생리적시간과 여가시간의 감소를 가져온다. 노동시간의 과잉은 여가나 생리적시간의 절대 양을 잠식해 들어가고, 여가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쳐 여가의 질이 부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나라 취업주부의 휴일의 여가시간 내용을 보면 평일에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거나, 집에서 휴식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다. 양적인 면에서 휴일 여가시간은 평일보다 훨씬 많고, 일본의 주부와도 별 차이가 없는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일본, 미국 주부에 비해 적극적인 여가시간의 비율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취업주부는 비생산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경향이 있다. 생활시간 내용으로 파악해 본 취업주부의 생활양식은 형태만 달리한 노동의 반복속에서 직장과 집안의 생활이 거의 전부인 지극히 단순하고 단조로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주부처럼 사회적인 모임이나 교제에 참석하거나 취미생활을 하는 등의 시간은 거의 없고, 평일은 직장일과 가정일에 묻혀 지내고, 휴

표 3. 영역별 시간사용에 대한 직업노동시간의 영향+

N = 396

직업 노동 시간	생리적시간		여가 시간		가사노동시간	
	평일	휴일	평일	휴일	평일	휴일
	-.296***	-.359***	-.531***	-.460***	-.548***	-.444***

*** p<0.01

+ : 상관계수(r)는 단순회귀분석의 회귀계수(β)값과 같다.

일도 거의 외부와의 접촉없이 밀린 가사노동을 하거나 집안에서 소일하고 있다.

2. 시간상호간의 영향력

시간상호간에 어떤 관련이 있으며 시간자체 요인이 각각의 시간사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보기 위하여, 직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과 나머지시간에 대한 상관분석을 하였다. 먼저 직업노동시간과 나머지 시간을 분석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는데, 시간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모든 영역의 시간은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직업노동시간은 평일은 가사노동시간에 휴일은 여가시간에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며, 평일과 휴일 모두 생리적시간에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사노동시간이 생리적시간과 여가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은 표 4에 나타나 있다. 가사노동시간이 생리적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평일의 생리적시간에만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데,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평일의 생리적시간과 평일과 휴일의 여가시간 모두 의미있게 더 적어진다. 이같은 결과에 의할 때 가사노동시간은 평일은 생리적시간에, 휴일은 여가시간에 상대적으로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생활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²⁾

우선 각 변수들이 평일 생리적시간에 미치는

- 2) 각 생활시간 영역에 각 변수들이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GLM분석을 하였는데 먼저 모든 변수를 모델에 포함시켜 분석하고, 또한 여러 변수들의 조합을 다양하게 하여 분석한 결과 특이하게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 변수가 있으면 최종모델에 포함시켜 다시 분석하였다. 다음 표 5, 6, 7, 8에서는 최종모델에서 의미있게 나타난 변수들만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표 4. 영역별 시간사용에 대한 가사노동시간의 영향

N = 396

직업 노동 시간	생리적 시간		여가 시간	
	평일	휴일	평일	휴일
	-.279***	-.044	-.133***	-.414***

*** p<0.01

표 5. 평일 생리적시간의 GLM분석

단위 : 분, N = 396

변 수	집 단	평 균
막내자녀 연 령	자녀없음	528.7
	만1세 이하	500.4
	2~6세	526.2
	국민 학교	514.1
	중고등학교	490.8
	F값	4.03***
직업노동 시 간	9시간 이하	534.5
	9.1~11시간	506.5
	11.1시간이상	495.1
	F값	12.51***
취업동기	생계유지	491.1
	운택한 생활	524.1
	자아실현	521.0
	F값	3.11***
	R ²	.113***
	평 균	512.1

** p<0.05

*** p<0.01

독립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는데, 막내자녀연령과 평일 직업노동시간, 취업 동기가 생리적시간 모델에 포함되었다. 생리적시간은 자녀가 중고등학교연령에 있을 때 가장 적고, 그 다음은 만1세 이하, 국민학교연령, 그리고 자녀가 아직 없거나 2~6세 자녀를 둔 주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동기별로는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한 경우 가장 적은 시간을 소비하고, 운택한 생활을 위해서나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한

표 6. 직업노동시간에 대한 GLM분석

단위 : 분, N = 396

변 수	집 단	평 일	휴 일
직업지위	하위서비스·판매·노무직	690.9	166.4
	기능·사무직	631.6	95.1
	관리·전문직	640.7	30.1
	F값	4.33**	9.94**
소득수준	80만원 미만	630.7	55.4
	80~120만원	672.1	77.2
	120~160만원	666.4	111.7
	160만원 이상	648.4	144.6
	F값	2.81**	3.52**
막내자녀 연 령	없 음	695.6	
	만1세 이하	651.9	
	2~6세	651.6	
	국민학교	629.9	
	중고등학교	642.8	
	F값	2.40**	
가족형태	핵가족	642.2	113.9
	확대가족	666.5	80.5
	F값	4.01**	2.77*
취업동기	생계유지	702.1	
	윤택한 생활	636.2	
	자아실현	624.9	
	F값	4.83***	
	R ²	.085***	.068***
	평 균	612.5	69.4

* p<0.1 ** p<0.05 *** p<0.01

경우는 비슷한 수준이다. 이 세 변수들은 평일의 생리적시간의 분산을 11.3% 설명해준다³⁾. 휴일은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할 때 휴일 직업노동시간만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나 표에 제시하지 않았다.

각 변수들이 직업노동시간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는데, 직업지위별로는 하위직에 종사하는 주부의 직업노동시간이 다른 두 집단의 주부보다 훨씬 더 많고, 기능사무직주부의 시간이 가장 적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80~100만원, 120~160만원 집단의 직업노동시간이 가장 많고 80만원미만 집단이 가장

적다. 막내자녀연령에 따라서는 자녀가 아직 없을 때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국민학교연령인 때 가장 적은 시간을 소비한다.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확대가족의 주부가 핵가족주부보다 직업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취업동기별로는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취업한 경우 직업노동시간이 더 많다. 이 변수들은 주부 평일 직업노동시간의 분산을 8.5% 설명해준다. 휴일의 직업노동시간은 직업지위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의미있게 감소하였다. 가족형태는 평일과 반대로 확대가족보다 핵가족주부가 더 많은 직업노동을 하였다. 이 세 변수는 휴일 직업노동시간의 분산을 6.8% 설명해준다.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수들의 독립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3) 직업노동시간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이므로 표에 제시는 하였으나 설명은 하지 않았다.

표 7.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GLM분석

단위 : 분, N = 396

변수	집단	평 일			휴 일+		
		총	신체적	관리적	총	신체적	관리적
직업지위	하위서비스·판매·노무직				336.1	240.0	
	기능직·사무직				336.8	246.6	
	관리·전문직				395.9	267.2	
	F값				5.98**	2.11*	
교육수준	중졸이하						96.9
	고졸						127.3
	대졸이상						154.3
	F값						6.83***
소득수준	80만원 미만				366.0	135.2	
	80~120만원				387.7	147.3	
	120~160만원				327.8	114.2	
	160만원 이상				343.4	108.0	
	F값				2.97**	3.25**	
주부의 상대적 임금율	낮은 집단	212.7		56.6			
	중간 집단	198.6		46.3			
	높은 집단	186.0		40.9			
	F값	3.09**		3.27**			
막내자녀 연령	자녀 없음		158.3	26.1	388.5		
	만1세 이하		176.1	61.4	398.7		
	2~6세		136.8	63.3	360.7		
	국민학교		142.3	54.7	295.3		
	중고등학교		156.9	34.2	338.2		
	F값		3.01***	7.07***	4.09**		
가족형태	핵가족	210.2	165.8				107.1
	확대가족	187.9	142.4				145.2
	F값	3.18*	3.07*				13.34***
가족수	2명	142.7	108.5		201.0	167.9	
	3명	190.5	144.1		356.9	251.7	
	4명	222.2	174.9		388.5	266.2	
	5명	227.8	180.5		396.0	253.7	
	6명이상	241.5	180.0		442.1	287.3	
	F값	2.08*	2.58*		4.06**	4.32*	
남편조력	전혀 돕지않음				369.9		
	조금 도와줌				377.7		
	어느정도 도와줌				337.7		
	많이 도와줌				339.7		
	F값				2.07*		
가정무용인유	무		164.8	41.2		266.8	105.6
	유		143.4	54.2		237.7	146.8
	F값		5.70***	3.74**		3.56**	9.80***
취업동기	생계유지		177.3	37.0	378.8	291.9	
	윤택한 생활		148.7	46.2	368.7	257.3	
	자아실현		136.3	60.5	321.3	207.6	
	F값		4.34***	4.73***	4.21**	9.59***	
직업노동시간	9시간 이하	246.4	186.5	63.9	406.1	290.4	139.2
	9.1시간~11시간	201.1	159.7	45.1	306.4	214.1	113.2
	13시간 이상	149.8	116.0	34.9			
	F값	39.35***	34.33***	11.46***	37.60***	36.90***	6.32***
	R ²	.295***	.287***	.195***	.251***	.194***	.134***
	평균	231.2	62.4	50.7	397.8	274.0	123.8

* p<0.1 ** p<0.5 *** p<0.01

+ : 휴일 직업노동시간은 일하지 않음과 일함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 : 주부소득/남편소득 × 100으로 계산하여 낮은집단(181), 중간집단(157), 높은집단(58)으로 나누었다.

있다. 평일의 총가사노동시간 모델에 포함된 변수는 주부의 상대적 임금율과 가족형태, 가족수, 평일 직업노동시간이다. 주부의 상대적임금율이 높을수록 주부가 가사노동에 소비하는 시간은 더 적다. 따라서 상대적 임금율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에 소비하는 시간이 감소한다는 Becker(1965)나 Gronau(1976)식의 시간배분이론과 자원이론은 본 연구의 평일 가사노동시간 결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형태는 핵가족 주부가 확대가족 주부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확대가족유형이 평일의 주부 가사노동시간을 절감하는 인적자원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가족수는 많을수록 가사노동에 소비하는 시간이 증가하여 많은 가족수는 주부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도록 하는 요구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 네 변수들은 주부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의 분산을 29.5% 설명하여 준다.

평일의 가사노동시간을 영역별로 나누어 보면 신체적 가사노동시간은 막내자녀연령이 만1세 이하일 때 시간소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중고등학교 연령일 때이며, 2~6세인 경우 가장 적은 시간을 소비한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주부가 보다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역시 가족수는 많을수록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였다. 가정고용인이 있을 때 보다는 없을 때, 취업동기는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취업한 경우에 신체적 가사노동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다. 평일 직업노동시간을 비롯한 이 변수들은 평일의 신체적 가사노동시간 분산을 28.7% 설명하여 준다. 평일의 관리적 가사노동시간은 주부의 상대적임금율이 높을수록, 막내자녀가 성장할수록 소비하는 시간이 더 적다. 그리고 신체적 가사노동시간과 반대로 가정고용인이 있는 경우가 관리적 가사노동에 소비하는 시간이 더 많고, 비경제적인 이유에 의해 취업한 경우에 보다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다. 직업노동시간을 비롯한 이 변수들은 평일의 관리적 가사노동시간 분산을 19.5% 설명하여 준다.

휴일의 총가사노동시간의 모델에 포함하여 분석한 변수는 직업지위, 소득수준, 막내연령, 가족수, 남편조력, 취업동기, 휴일 직업노동시간이다.

주부의 직업지위는 높을수록 보다 적은 시간을 소비한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80~120만원인 집단이 가장 많은 시간을, 120~160만원 집단이 가장 적은 시간을 소비하였다. 막내자녀는 성장할수록 시간소비가 감소하다가 중고등학교 연령일 때 다시 증가하였다. 남편의 조력은 전혀 없거나 조금 있을 때 보다는 어느 정도 이상의 도움을 줄 때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였다. 취업동기는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취업한 경우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다. 휴일 직업노동시간을 비롯한 모델에 포함된 변수들은 휴일의 가사노동시간의 분산을 25.1% 설명해준다.

휴일의 가사노동시간을 영역별로 나누어 보면, 신체적 가사노동시간은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더 많고, 대체로 가족수가 많을수록, 경제적 필요에 의해 취업한 경우에 시간이 증가하였다. 가정고용인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다. 휴일 직업노동시간을 비롯한 네 변수들은 신체적 가사노동시간의 분산을 19.4% 설명하여 준다. 휴일의 관리적 가사노동시간은 신체적 가사노동시간과 반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고용인이 있는 경우에 더 많고, 소득수준은 낮을수록, 가족형태는 확대가족이 더 많다. 휴일 직업노동시간과 이 변수들은 휴일 관리적 가사노동시간의 분산을 13.4% 설명해준다.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수들의 독립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GLM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평일의 총여가시간은 막내자녀연령과 평일 직업노동시간이 모델에 포함되었는데, 막내자녀가 성장할수록 주부의 여가시간이 증가하였다. 이 두 변수는 평일의 여가시간 분산을 21.2% 설명하여 준다. 영역별로 나누어 보면 소극적 여가시간은 자녀가 아직 없을 때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막내자녀가 중고등학교 연령일 때이며, 만1세 이하일 때 가장 적다. 취업동기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한 경우의 소극적 여가시간이 더 많다. 이 세 변수들은 평일의 소극적 여가시간의 분산을 21.9% 설명하여 준다. 평일의 적극적 여가시간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때 평일 직업노동시간을 비롯한 모든 변수들이 의미있는

표 8. 여가 시간에 대한 GLM분석

변 수	집 단	평 일		휴 일+		적극적
		총	소극적	총	소극적	
교육수준	중졸이하					41.4
	고 졸					91.9
	대졸이상					116.8
	F값					5.24***
막내자녀 연 령	자녀없음	136.4	136.9	313.1		93.5
	만1세 이하	89.2	83.3	248.8		46.2
	2~6세	96.9	88.7	284.8		65.4
	국민학교	100.0	90.9	347.7		119.1
	중고등학교	119.7	114.0	320.0		92.9
	F값	6.16***	5.77***	3.46***		3.44**
가족 수	2 명			419.8	293.2	
	3 명			331.4	243.0	
	4 명			309.6	209.4	
	5 명			383.5	221.8	
	6명 이상			265.0	176.6	
	F값			3.52***	4.30**	
취업동기	생계유지		140.3	253.3	181.1	52.1
	윤택한 생활		104.4	294.6	245.9	85.8
	자아실현		63.6	360.6	232.4	112.2
	F값		44.13***	9.51***	3.28**	8.39***
직업노동 시 간	9시간 이하	151.9	151.9	349.8	272.0	
	9.1시간~11시간	109.9	109.9	255.8	167.6	
	13시간 이상	73.0	73.0			
	F값	41.81***	41.81***	28.66***	58.24***	
	R ²	.212***	.219***	.182***	.192***	.108***
	평 균	147.7	97.0	352.0	255.4	96.6

* p<0.1 ** p<0.5 *** p<0.01

+ : 휴일 직업노동시간은 일하지 않음과 일함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휴일 총여가시간의 모델에 포함된 변수는 막내 자녀연령과 가족수, 취업동기, 휴일 직업노동시간이다. 막내자녀는 국민학교연령에 있을 때 여가시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중고등학교 연령일 때이며, 만1세이하 일 때 가장 적다. 가족수는 4명일 때까지 점점 감소하다가 5명일 때 시간이 가장 많고, 6명이상이면 다시 크게 감소하였다. 취업동기는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취업한 경우에 더 적은 시간을 소비하였다. 이 변수들은 주부의 휴일의 총 여가시간의 분산을 18.2% 설명해준다.

휴일의 여가시간을 영역별로 나누어 보면 소극적 여가시간은 취업동기별로는 윤택한 생활을 위해 취업한 경우의 여가시간이 가장 많고,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한 경우 가장 적다. 가족수에 따라서는 총여가시간에서와 같다. 직업노동시간을 비롯한 두 변수는 휴일의 소극적 여가시간의 분산을 19.2% 설명하여 준다. 휴일의 적극적 여가시간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인 필요에 의한 동기가 적은 경우 더 많다. 막내자녀연령은 국민학교연령일 때까지는 주부의 여가시간이 점차 증가하다가 중고등학교연령이 되면 약간 감소하

였다. 이 세 변수는 휴일의 적극적 여가시간의 분산을 10.8% 설명해준다.

V. 결 론

앞으로 기혼여성의 직업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핵가족의 보편화, 자녀수의 감소, 그리고 산업의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증가 현상은 가속화되어 취업주부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취업주부가 증가함에 따라 직업과 가족역할의 동시적인 역할 요구가 어떻게 잘 조화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많은 역할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결국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미래사회에서 시간은 어떤 자원보다도 값비싸고 희소한 자원이 되고, 시간의 효과적인 사용여부는 사회생활의 성공여부와 개인의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시간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시간사용 방법을 제시하거나,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시간사용 자료로 개인이나 집단의 생활양식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생활시간 연구가 가정관리학 분야에서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취업주부는 평일은 생리적시간에 522분(8시간 42분, 36%), 직업노동에 599분(9시간 59분, 42%), 가사노동에 214분(3시간 34분, 15%), 여가에 103분(7%)을 소비한다. 휴일은 생리적시간 610분(10시간 10분, 42%), 직업노동 71분(5%), 가사노동 395분(6시간 35분, 28%), 그리고 여가에 349분(5시간 49분, 25%)을 소비하고 있다. 취업주부는 평일은 총노동에 전체시간의 57%에 해당하는 시간을 소비하나, 여가시간은 불과 7% 밖에 되지 않았다. 생활시간사용으로 파악한 취업주부의 생활양식은 극히 단조롭고 단순하며 불균형적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둘째, 시간사용에서 시간상호간의 영향력을 보면 직업노동시간은 평일은 가사노동시간에, 휴일

은 여가시간에 가장 큰 부정적(-)영향을 미치고, 평일과 휴일 모두 생리적시간에 가장 적은 영향을 미쳤다. 가사노동시간은 평일은 생리적시간에, 휴일은 여가시간에 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

셋째,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직업관련변수들은 시간사용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시간영역에 따라서는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소득이나 교육, 직업지위, 취업동기 변수들은 수준이 높을수록 직업노동시간이나 신체적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는 반면, 생리적시간과 관리적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그중에서도 특히 적극적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남편에 대한 부인의 상대적임금율은 평일 가사노동시간과 영역별로는 평일의 관리적 가사노동시간이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어, 주부의 임금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에 보다 적은 시간을 소비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생활시간중 직업노동시간이나 신체적 가사노동시간은 점차 감소하고, 생리적시간과 여가시간, 그중에서도 적극적 여가시간, 그리고 관리적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가정고용인이 있는 경우 주부의 신체적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나, 관리적 가사노동시간은 더 증가하였다. 남편의 조력은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을 경감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미래사회는 가사조력을 받을 수 있는 남편이외의 가족원이 많지 않고 남편들의 낮은 가사참여가 취업주부의 역할과중을 가져오기 때문에 남편의 능동적인 가사참여는 더욱 요청된다고 하겠다. 실제로 옥선화(1982)는 남편의 참여가 크지는 않지만 부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 Pleck(1979)도 변화하는 역할관점에서는 남편의 역할도 점차 변화하여 초기와는 달리 부인이 취업한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남편들도 점차 직업역할보다는 가정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Pleck, 1985; 차재호, 1987), 과거의 가족에 비해 부부관계가 평등관계를 지향하는 추세이다. 한편 가정고용인의 용역비용은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부

인이 취업한 경우 남편의 적극적 가사참여는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막내자녀연령은 만1세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면 자녀연령이 높을수록 주부의 생리적시간과 관리적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는 반면, 신체적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은 증가하였다. 가족수의 증가는 가사노동에 보다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하고, 여가시간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우리나라 취업주부는 일반적으로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의 가사조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결과 확대가족은 주부의 평일 신체적 가사노동시간에는 인적자원으로 기능하나, 휴일은 주부의 관리적 가사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확대가족 유형은 주부의 평일 신체적 가사노동시간에는 인적자원으로 작용하고, 휴일은 요구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주부가 지각한 역할 분담이 아닌 실제로 소비한 시간을 측정하고, 가사노동시간을 평일과 휴일, 그리고 신체적, 관리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가족형태에 따른 영향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본다. 시간영역에 따라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직업관련 변수에 의해 약 30%까지 설명되는 영역도 있으나, 시간사용은 앞에서 보았듯이 시간자체의 영향력, 즉 시간상호배분에 따라 크게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취업주부의 과중한 노동시간과 부실한 시간사용은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시간사용의 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 취업주부는 직업노동이나 가사노동시간은 줄이고 여가시간과 생리적시간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생활의 내용도 다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하위직 취업주부의 생활시간배분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특히 취업주부는 전통적 성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사노동을 가족이 공유하도록 하며, 가사노동 표준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는 교육을 통하여 성차별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고, 역할의 평등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취업주부는 가사노동을 절감하고, 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전략과,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사용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정책적으로는 취업주부의 역할과중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질이 높은 공영 탁아시설이나 공공 여가시설을 확충 보급하는 것이 시급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비취업주부와 취업주부 및 비취업주부 남편의 생활시간사용을 파악함으로써 각 집단의 생활양식을 비교하고 문제점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1) 경제기획원(1970, 1975, 1980).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 2) 경제기획원(1985, 1987, 1989, 1990). 경제활동인구연보.
- 3) 김의숙(1990).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노동부(1989). 노동통계연감.
- 5) 농촌진흥청(1984, 1986).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 분석 보고서. 생활개선자료.
- 6) 민경애·윤복자(1985). 주부의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의 실태와 지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 15-22.
- 7) 옥선화(1982). 한국도시가족의 역할구조 분석(II). 성심여자대학교 논문집(자연·가정과학편) 13, 5-34.
- 8) 유영주(1977). 취업주부의 가정내 역할 수행상의 문제. 서울대학교 가정대 논문집 2.
- 9) 이기영(1988).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0) 이연주(1984). 주부의 취업에 따른 가정내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4), 131-146.
- 11) 이용학(1985). 우리나라 취업주부의 소비자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2) 이정수(1984).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2(2), 103-132.
- 13) 임정빈(1981). 도시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2), 73-87.
- 14) 차재호(1987). 한국사회에서의 가치관의 변화와

- 적용문제. 현대사회연구소, 126-142.
- 15) 한경미(1987).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6) 한경미(1989).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1-13.
 - 17) 한경미·황덕순(1990). 주부의 여가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에 관한 연구 - 교육기 자녀를 둔 비취업 주부를 중심으로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69-82.
 - 18) 한국방송공사(1985, 1986, 1988). 국민생활시간조사.
 - 19) 홍두승(1983).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연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5(3), 69-87.
 - 20) 大竹美登利·伊登セシ·天野寛子·森ます美 外(1987). 大都市ニユタウン在住の雇用労働者夫妻の生活時間と生活様式(제2보) 生活時間の全般的分析. *日本家政學會紙*, 38(10), 911-921.
 - 21) 桑田百代·伊藤セシ·大竹美登利(1976). 共働き家庭と非共働き家庭の夫妻 生活時間構造の推移. *日本家政學雜誌*, 28(6).
 - 22) 森ます美·天野寛子·大竹美登利·伊登セツ : 大都市ニユタウン 在住の雇用労働者夫妻の生活時間と生活様式(제3보) 長時間勞動か 家庭生活に及はす影響. *日本家庭學會紙*, 38(10), 1987 : 1099-1021.
 - 23) 伊藤セツ·大竹美登利·天野寛子·森ます美外 : 大都市ニユタウン 在住の雇用労働者夫妻の生活時間と生活様式(제1보) 調査論·調査方法および結果の概要. *日本家庭學會紙*, 38(10), 1987 : 90-909.
 - 24) Becker, G.S.(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The Economic Journal*, 493-517.
 - 25) Blood, R.O. and D.M. Wolfe(1985). Husbands and Wives. Glencoe, IL : Free Press, (Pleck, J.H. Working Wives, Working Husbands, 12-15에서 재인용).
 - 26) Bullock, N., Dickens, P., Shapcott, M. and Steadman, P.(1974). Time Budgets and Models of Urban Activity Patterns. *Social Trends* 5, 45-63.
 - 27) Evenson, R.E. The Allocation of Women's Time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Behavior Science Research*, 17(3 & 4), 196-215.
 - 28) Firestone, T. and B.A. Shelton(1988). An Estimation of the Effects of Women's Work on Available Leisure Time. *Journal of Family Issues*, 9(4).
 - 29) Geerken, M. and W.R. Gove(1983). At Home and At Work - The Family's Allocation of Labor, in John Scanzoni(ed.), Beverly Hills, Sage Pub.
 - 30) Goebel, K.P. and C.B. Hennon(1982).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Wife's Employment Status, Stage in the Family Life Cycle, Meal Preparation Time and Expenditures for Meals Away From Hom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 Home Economics*, 6, 63-78.
 - 31) Gronau, R.(1977). Leisure, Home Production, and Work - The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Revisite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5(6), 1099-1124.
 - 32) Hafstrom, J.L. and V.R. Schram(1983). Household Time of Wives : Pressure, Facilitators, Constraint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3), 245-255.
 - 33) Leibowitz, A.(1974). Education and Home Production.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64(2), 243-250.
 - 34) Meiners, P.S. and G.I. Olson(1987). Household, Paid and unpaid work Time of Farm women. *Family Relations*, 36, 407-411.
 - 35) Nickols, S.Y. and E.J. Metzen(1978). Household Time of Husband and Wif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2), 85-97.
 - 36) Nickols, S.Y. and E.J. Metzen(1982). Impact of Wife's Employment upon Husband's Household Housework. *Journal of Family Issues*, 3(2), 199-216.
 - 37) Nickols, S.Y. and Mohamed Abdel-Ghany(1983). Leisure Time of Husbands and Wiv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2), 189-198.
 - 38) Pleck, J.H.(1979). Men's Family Work : Three Perspectives and Some New Data. *The Family Coordinator*, 481-488.
 - 39) Pleck, J.H.(1985). Wives' Desire for Greater Husband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 77-96, in John Scanzoni (ed.) Working Wives, Work Husbands, Beverly Hills, CA : Sage Publications.
 - 40) Robinson, J.P.(1977). How American Use Time : A Social-Psychological Analysis of Everyday Behavior, New York : Praeger Pub.

- 41) Sanik, M.M.(1981). Division of Household Work : a Decade Comparision 1967~1977.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2).
- 42) Szalai, A.(ed.)(1972). The Use of Time : Daily Activities of Urban and Suburban Populations in Twelve Countries. The Hague : Mouton.
- 43) Walker, K.E. and M.E. Woods(1976). Time Use : A Measure of Production of Family Goods and Services.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44) Wheeler, C.L. and R.P. Arvey(1981).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the Famil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1), 10-20.